



인터뷰 3천평의 지황재배한 장사현씨

경북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장사현씨(36). 10여년째 과수재배를 해 오던 그는 올 봄 처음으로 지황을 파종했다. 『선조들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자원인 우리 약재가 수입약재에 밀려 자꾸만 자취를 감춰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고 말하는 장씨는 지난 4월, 한국생약협회가 우리생약살리기 차원에서 보급한 '북경1호' 5백근을 분양받아 3천평에 생전 처음으로 지황농사를 시작한 것이다. '북경1호'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는 지황의 국내 자급자족을 위해 생약협회가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지황종근. 그간 쏟은 정성으로 파종한지 이제 두달째인 지황밭은 푸르름이 무성하고 뿌리성장도 대견하다. 『경험도 없이 처음 시도한 농사니 만큼 망설임도 걱정도 많았지만 생각보다 발아율도 순조롭고 아이들 새끼손가락만한 굵기로 자란 뿌리를 보며 한시름 놓는다』는 장사현씨. 그러나 올 여름 장마를 지내기 전까지 안심은 금물이다. 추대율이 높아 일일이 꽃대를 꺾어줘야 하는 번거로움에 인건비도 수월찮게 들어가고, 무엇보다 축적된 재배기술이 없어 어려움이 많지만 올 지황재배에 성공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비용도 절감되고 경험도 있으니 그만큼 쉬워질 것이라는 그의 다부진 표정에서 우리 농촌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도 좋을가. <熙>

“선조들 건강지켜온 소중한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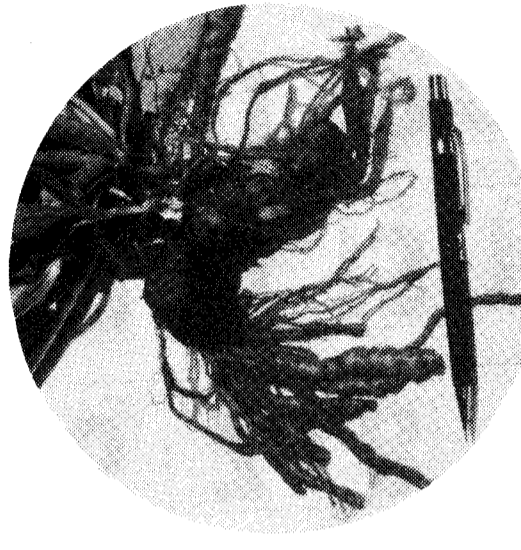
지황과 백출에 대한 수입조절 대상물류에서 삭제(추진품목으로 전환)가 이루어진 후부터는 지황의 수요가 급증되고 있다. 특히 한류열풍의 영향에서 제외된 배양근으로 생산한 도인 지황 재배사업은 국내 생약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황의 국내 생산은 광복후 감수하여 전부 정제와 증합에서 명맥만을 유지하는 정도로 재배가 위축된 반면 그 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매년 중

특별기고

성낙술 연구관

<농진청작사>

국으로부터 2천여근씩을 수입하고 있는 지황은 1백~2백9에 달하지만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가 수입한 부분은 대부분에서 한류열풍으로 가격도 비교적 싼 값에 수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수입해 사용할 바엔 국내에서 재배하는 게 꼭



경북 영주시 문수면에서 캔 지황.

평문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충분한 시간적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재배농민이 연구원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자등이 재배기술을 농민부와 공동연구를 통해 나누어 2회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한 확신을 얻었기에 여기 소개하면 서 앞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경기, 충청, 강원권을 조사한 필자는 모두 6개소 8개필지로 출현율은 최저 70%에서 1백%까지 다양하였으나 북부산지에는 무너져 탈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출현율의 차이는 농가마다 재식밀도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였다. 2차 조사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남(합천)과 경북지역(상주, 영주, 김천)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1차 조사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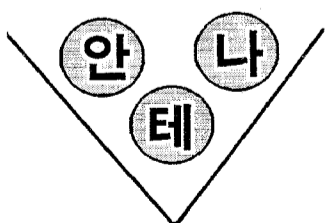


인 경기, 강원, 충청지역보다 출현율이 높았다. 생육면에서 월등히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장사현씨가 포장한 일포가 균일하고 생육도 왕성하였으며 뿌리줄기가 비대체에 들어 평균 1.5%의 환은 뿌리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대부분 조사 농가에서는 종근의 재식기, 종근의 손질, 재식방법 및 거리 비닐피복 유무 비닐질, 제초방법 등 일정한 기준이 없는 상태였는데 특히 재식밀도에 있어 적게는 1평

15~20주, 많게는 35~40주씩 식재되어 있었으나 금년 수확기의 평가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조사해 현재(6월 16일)까지의 전반적 작황은 기대이상으로 양호하였으나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에 대해 기술하면 첫째 7월초부터 상승적으로 상승하는 장마철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하면 안 되겠다. 도랑을 깊게 쳐서 강우 즉시 물 빠짐이 좋도록 해주어야겠고 둘째로는 장마기에 발생하는 각종 병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황에는 점무늬병과 물기, 뿌리썩음병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이센 M-45 타로닐 수화제, 지오판, 플렛프로피, 이프토수화제(이상 점무늬병), 리조릭스, 펜시쿠르, 베리신, 포리독신(수화제), 베노일수화제(이상 물기, 뿌리썩음병) 등을 예방약으로 장마철 농약은 지황에 적용할 때 고시된 농약이 아니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해 방제와 장마철 이후 후기 관리 이므로 재배농민은 자신들보듯 재배포장을 관찰하면서 이상 발생시 즉시 전문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자세라 할 수 있다. 모쪼록 이번 지황재배사업이 산·학·연이 협조하는 가운데 성공을 거둬서 대량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은방울꽃, 감심·이노제 무주 덕유산과 팔공산 등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은방울꽃을 재배, 적응력을 시험한 결과 생육이 양호, 유망 야생화로 육성할 가능성이 높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북도 농촌진흥원 화훼연구팀이 도내 고산에서 야생하고 있는 은방울꽃을 채집, 재배적응력과 대량번식을 위한 조기번식 방법을 연구한 결과 적응성이 양호하고 자연분구력도 좋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부터 화분에 정식, 시장기호성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 1백여개의 화분을 생산, 시범출하할 예정이다. 야생 은방울꽃은 5월 초·중순에 흰색의 꽃이 피고 향기가 뛰어나며 한방에서는 풀전체를 감심, 이노제 등의 특효약으로 쓰고있다. 재생방법은 화분 용토로 낙엽썩은 흙 40%, 모래 30%, 발효 30% 비율로 섞어



온실에 재배하면 노지에다 보다 2~3주 정도 일찍 꽃을 피울 수 있으며 화분상태에 꽃이 피는 기간은 보통 2~3주간으로 비교적 길다. 한편 은방울꽃은 실내에 두면 향기가 방안에 가득해

매우 진귀한 꽃으로 평가되고 있다. 멸종위기식물 복원사업 산림청은 14일 서울소재 관악산등 5개산에서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자생지 복원사업에 나서 복주머니꽃등 5종 1백15그루를 복원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이시복 산림청차장, 윤종화 임학회장, 최현섭 생태회회장, 원일병 자연보존협회장등을 비롯 관련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서울소재 관악산에서 복주머니꽃 30그루

를 복원했다. 또 서울소재 용마산에 갯쟁이풀 20그루, 수락산에 서울윤갈피 5그루와 수원소재 칠보산에 칠보치마꽃 30그루,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절부암 주변에 박달복서 30그루를 각각 복원했다.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자생지복원사업은 홍릉수목원 및 광릉수목원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을 보존 증식시켜 원래 식물자생지에 복원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주관하에 실시해 왔다.